

정해영 “더 단단하게 … 독해져서 돌아오겠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준비 지난 시즌 32S보다 3패 마음 아파 올해 부상 없이 풀타임 뛰고 싶다

“더 단단하게 독하게 돌아오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정해영은 2022년을 생각하면 ‘아쉬움’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지난 시즌 정해영은 55경기에 나와 56이닝을 소화하면서 3.38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 7패 32세이브를 기록했다. 2021시즌 KBO리그 최연소 30세이브 기록을 달성하는 등 9위 팀에서 34세이브를 장식했던 정해영은 올 시즌에도 32개의 세이브를 더했다.

하지만 32개의 성공보다는 ‘3패’라는 실패가 더 아파게 남았다. 정해영은 “실패한 것 중에 3번의 패를 안 먹었으면 팀이 더 좋은 성적,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쉽다. 성적 보면 뿌듯한 측면도 있지만 아쉬운 게 매년 생각난다”며 “많이 느꼈다. 팀이 꼭 연패할 때 보면 내가 블론 세이브를 해서 길어졌다.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내가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라서 더 독하게 마음먹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팀의 마지막 경기에 등판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다. KIA는 시즌 막판까지 5위 싸움을 한 끝에 4년



만의 포스트시즌을 경험했다. 그러나 와일드카드 결정전 경기로 끝나버린 짧은 가을, 팀의 마무리 정해영은 마운드에서 기다렸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

정해영은 “아쉽게 끝났다. 그래도 불펜에서 그런 공기, 분위기를 느꼈다. 그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5등 했으니까 이제 더 높은 곳에서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목표가 잡히는 것 같

다”고 이야기했다. 경기 마지막 순간 목직한 책임감으로 마운드에 오르고 있지만 정해영은 올해로 프로 4년 차, 아직은 어린 선수다. 지난 3년 많은 것을 이뤘지만 더

성장해야 하고, 성장할 선수다. 정해영은 “지난해 성장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더 성장해야 한다.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더 성장하려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 어린 선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마무리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또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솔선수범도 하고 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볼넷으로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한 번 맞을 때 연속 3안타도 맞은 적이 있다. 이닝당 출루 허용율(WHIP)을 낮춰야 한다. 그해야 안정감도 생긴다. 발전된 해로 만들고 싶었지만 못했다. 그래도 많이 느낀 해였던 것 같다”며 “안 다치고 겨울에 몸 잘 만들어서 계속 풀타임 뛰고 싶다. 이제 3년 풀타임 뛰었고, 최소 3년은 해야 인정받고, 내 자리라고 느낄 것 같다. 아빠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2-3년은 더 독하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해영은 독한 마음으로 독하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회복’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캠프를 치렀고, 웨이트에 공을 들이면서 몸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

정해영은 “아직 캠프 명단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야 한다. 항상 명단 나올 때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준비해야 한다”며 “응원 진짜 많이 받았는데 성장한 것도 있지만 퇴보한 부분도 있어서 팬들에게 아쉽고 죄송하다. 더 단단하게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주형



임성재



이경훈

김주형, 하와이서 PGA 시즌 첫 우승 도전

12일부터 소니오픈 열려 임성재·이경훈도 우승 욕심 최경주 등 한국선수 7명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새해 첫 대회에서 ‘톱5’에 진입한 한국의 ‘영건’ 김주형(21)이 하와이에서 이어지는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김주형은 12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라이 컨트리클럽(파70·7044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790만 달러)에 출전한다.

지난해 8월 윈덤 챔피언십,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우승으로 PGA 투어 정식 입성과 안착을 빠르게 이뤄낸 김주형은 PGA 투어의 2023년 첫 대회인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5위(22언더파 270타)에 올랐다.

지난해 PGA 투어에서 우승했거나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나갔던 선수만 출전할 수 있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에서 나흘 내내 5위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며 새해에도 활약을 예고했다. 나이키와의 후원 계약 이후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김주형은 세계랭킹도 14위로 끌어 올려 세계 ‘톱10’ 진입도 바라보고 있다.

39명의 선수만 출전했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와 달리 이번 대회엔 144명이 가량을 겨루는데, 김주형은 대회와 PGA 투어 홈페이지가 꼽은 ‘파워 랭킹’에서 전체 1위에 오를 정도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주형은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 세계랭킹(14위)과 페덱스컵 순위(3위)가 모두 가장 높다. 세계랭킹에선 조던 스피스(미국·15위), 페덱스컵 순위에선 키건 브래들리(미국·5위)가 김주형의 뒤를 잇는 출전자들이다.

김주형을 필두로 이번 대회에 한국 선수는 총 7명이 출전한다.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7위로 샷 감각을 조율한 이경훈(32)과 공동 13위로 마친 임성재(25)가 김주형과 마찬가지로 2주 연속

실전에 나선다. 김시우(28)와 김성현(25), 안병훈(32)은 새해 첫 대회에 출격하며, 2008년 소니오픈 우승자인 한국 남자골프의 전설 최경주(53)도 나선다.

이 대회의 디펜딩 챔피언은 일본 남자골프의 간판 마쓰야마 히데카다. 마쓰야마는 지난해 러셀 헨리(미국)를 연장전에서 꺾고 이 대회 우승을 차지, PGA 투어 통산 8승으로 최경주와 아시아 선수 최다승 타이틀을 이룬 바 있다.

일본 기업 소니가 주최하는 이 대회에서 일본 선수가 우승한 건 1983년 아오키이사와 이후 마쓰야마가 두 번째였다.

그는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는 공동 21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연장전 패배를 당한 헨리도 이번 대회에 출전해 설욕전에 나선다.

2013년 소니오픈 우승자이기도 해 10년 만의 정상 탈환을 꿈꾸는 헨리는 김주형에 이어 ‘파워 랭킹’ 2위에 이름을 올렸고, 마쓰야마는 8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 이강철 감독과 코칭스태프. 왼쪽부터 정현욱 투수코치, 심재학 퀄리티 컨트롤 코치, 김준기 전력분석위원, 이강철 감독, 진갑용 배터리 코치. /연합뉴스

WBC 한국 대표팀 ‘전력 분석 삼총사’ 뜬다

김준기·허삼영·심재학 상대별 대응 전략 마련

두 달 앞으로 다가온 5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한국 야구대표팀의 전력 분석 삼총사가 뜬다. 프로야구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에서 오랜 기간 전력 분석팀장으로 내공을 키운 김준기 전력분석위원, 삼성 라이온즈 감독 출신 허삼영 전력분석위원, 심재학 대표팀 퀄리티 컨트롤(QC) 코치가 현미경 분석을 책임진다.

김준기 위원은 현재 한일장신대 코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삼성에서 중도 퇴진한 허삼영 위원은 롯데 자이언츠 전력분석 코디네이터로 새 직장을 구했다.

엄연히 본업이 있지만, 두 전력 분석 전문가는 WBC에서 한국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위해 의기투합해 정밀한 분석으로 대표팀 전력을 끌어올릴 참

이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와 본선 1라운드에서 격돌하는 B조의 일본, 호주, 중국, 체코 분석에 전념한다. 허 위원은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할 경우 대적할 대만, 쿠바 등 A조 나라의 전력을 살살이 파헤친다. 김준기 위원은 “지난해 WBC 유럽 예선에서 체코 경기를 관전했고, 작년 11월 일본 대표팀과 호주 대표팀의 평가전도 참관해 자연스럽게 B조 전력 분석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심재학 QC 코치와 일본-호주 평가전을 지켜보며 전력 분석 방법 등을 상의했고, 최근 이강철 WBC 대표팀 감독과 함께 호주로 넘어가 호주프로야구 5경기를 관전하고 9일 귀국했다.

역시 파나마의 본선 진출을 현장에서 지켜본 허 위원은 파나마가 속한 A조 분석을 담당한다. 허 위원은 베영수 대표팀 투수 코치 등과 10일 호주로 이동해 호주 전역 2차 분석에 들어간다.

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전력 분석 브리핑에는 심 코치와 김 위원, 허 위원 삼총사가 모두 참석한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브라질 출신 발디비아·광양제철고 출신 박태용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브라질 출신 공격형 미드필더 발디비아(28)와 전남 유스인 광양제철고 출신의 박태용(22)으로 중원을 강화했다.

175cm, 67kg의 발디비아는 유소년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면서 2016년 브라질 U23 축구대표팀에 선발돼 맨시티 GK 에데르송, 라치오 FW 안데르손 등과 함께 뛰며 4경기에 출전해 1득점을 기록했다.

브라질과 사우디 리그에서 활약한 발디비아는 프로통산 297경기 나와 33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발디비아는 “전남에 입단하게 돼 기분이 좋다. 전남이 목표하는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팀을 위해서 그라운드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태용은 184cm, 75kg의 체격을 갖췄으며 순천중앙초-광양제철중-광양제철고를 졸업한 전남 유스 출신의 선수다. 광운대에서도 실력을 발휘하면서 지난해 10월 올림픽 축구국가대표팀 소집명



발디비아(왼쪽)와 박태용

단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기본기와 기술력을 갖춘 중앙미드필더로 성장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박태용은 “꿈에 그리던 전남에 입단하게 돼 매우 기쁘다. 프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프로에 뛰어든 소감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